

隨想

미행자(尾行者)

— 전창식 회원 (청주동부경우회 회장, 창작비평연구회장)



— 이상하다?
그는 발걸음을 멎고 조용히 뒤돌아왔다. 이미 어둠에 깔린 산자락은 아무런 여운도 남기지 않고 인기척도 느낄 수 없다. 그래도 그는 졸전과 같이 번져가는 어둠 속을 약간은 긴장된 표정으로 주의롭게 훑어 본 뒤에야 발걸음을 옮긴다. 그리고 어수룩한 마을 앞 발목길을 지나 그의 집에 이르게 되면 다시 또 한 번 집주변을 살피고 나서야 방으로 들어가 긴장 속에 흠뻑 젖은 옷을 벗게 된다.

— 분명히 미행 당하고 있다.
약 20일여 전부터 그가 겪어 온 일이었다. 언제부터인가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그의 신변 주위를 소리 없이 맴돌고 있는 것이다. 처음엔 그저 나이 탓이었지 하고 대수롭잖게 생각했다. 그러나 날이 지날수록 느껴지는 횡수가 도를 더하면서 이제는 허술하게 간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현실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그를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꼈기 때문이다.

본국 수사과 강력반장으로 형사근무 18년이라는 년한을 경험한 그는 우수한 수사관이라는 명예를 뒤로 하고 경찰직을 물러난 지 30년이 넘었다. 그리고 시골 본가에 들어가 조용한 은둔생활로 평화로운 여생에 들어간 그에게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다가온 것은 확실히 무관할 수 없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의 예리하고 능숙한 전직의식과 본능적인 예감은 마침내 그를 맴돌며 긴장한 미행자의 정체가 그의 경찰재직 시절에 옹의자로 검거 당해 교도 생활 후 출감한 사실을 밝히기에 이른다. 이윽고 술상을 앞에 놓고 두 사람은 마주 앉는다.
나는 주범이 아니다. 취조과정에서 물리적 고통을 당했다. 복역 중에 가족들이 심한 경제적 고통을 입었다. 뭔가 보상이나 위자료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들을 말하기 위해서 그 기회를 보느라 그동안 내 주변을 서성했다는 게 미행자의 변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그의 표정이나 눈빛에서 동정 어린 애수로온 정감을 발견할 수 없는 점에서 듣는 자의 표정과 심정은 그저 답답하고 어둡기만할 뿐이었다.

— 주범 아닌 종범이라 할지라도 범법자 입에는 틀림없고, 조사과정에서 물리적 고통을 당했다는 말은 이제 와서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교도소에 수감 된 것은 관·검사의 권한이므로 나에게서는 말할 필요가 없다. 물론 보상이나 위자료 같은 것도 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군을 바라보며 가슴을 어루만졌다. 그리고 상대방에게로 시선을 옮겼다.

「나로서는 당신에게 보탬이 될만한 아무런 일도 해 줄 능력이 없소. 그렇게 알고 앞으로는 내 뒤를 맴돌지 마시오」

그는 아무런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대문 밖으로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 경찰 ... 전직경찰 ... 그 한계선이 어느 분점인가?
멀리 개 짖는 소리가 어둠을 타고 퍼져갔다.

退職 경찰 · 6.25 參戰 경찰

경찰병원 진료비 감면 확대

경찰청은 최근 경우회 중앙회의 협조요청에 따라 경찰병원 수가규칙 등을 개정해 퇴직 경찰과 6.25 참전 경찰에 대한 경찰병원 진료비 감면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금껏 '20년 이상 재직한 퇴직 경찰관'으로 제한해온 경찰병원 진료비 감면 대상을 '6.25 참전 경찰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지금은 외래 진료비에 한해

무료 혜택을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입원 진료비의 30%를 감면해 주고, 장기적으로는 입원 진료비의 50%까지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에 공헌한 경찰관의 예우 차원에서 진료비 혜택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며 "6.25 전쟁에 참전한 약 7천여명의 경찰관이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회장 충북경우회 방문

警友들의 노고 치하

구홍일 경우회장이 지난 3월 10일 충북경우회를 방문하고 이 지역 조직운영에 애쓰는 임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충북경찰청에 들려 지역치안에 수고하는 현직 경찰관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구 회장은 먼저 충북경찰청에 들려 최석민 청장과 환담한후 상황실에 들려 직원들을 격려하고, 지방청별관에 위치한 충북 경우회에 들려 이재춘

회장으로부터 업무현황을 설명하는 한편 오찬을 함께했다.

오후에는 청주동부 경우회와 경찰서에 들려 지영호 회장, 박춘희 서장과 환담한 후 청주시 석교동에 거주하는 老警友 이상현 회원(70세)을 위로하였다.

이어 구 회장은 청주 서부경우회와 서부경찰서를 방문, 이창호 회장과 이세민 서장 및 지역회 임원들과 환담하고 격려했다.

전국 각급회 행사 및 운영비

4億 6千 5百 萬원 지원

최근 금년도 전국 각 급회 총회 행사비 및 지역회 1차 운영비 총 4억 6천 5백 2십 만원이 시·도 및 지역회로 지원됐다. 이번에도 지원된 경비는 전국 19개 시도 및 직할회 총회비 2천 1백만원과 격려금 1천만원, 운영비 2천 9백만원을 비롯해 전

국 2백 70개 지역회 총회비 1억 3천 5백만원, 1차 운영비 2억 7천만원 등이다.

중앙회 경리 담당자는 『각 급회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제일은행을 통해 입금 처리 되었다』며 『금액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기흥골프장 新任 감사에 손기석 前 경무관



임에 손기석 전 경무관을 선임했다.

손기석 신임 감사는 이번 4월 1일부터 오는 2008년 3월 말까지 3년간 경우회회의 감사로서 기흥골프장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손 감사는 경찰청 경무과장과 서울 북부서장을 역임하고 지난 99년 12월 경무관으로 명예퇴직 했었다.

李相斗의 교통상식<35>

이럴 땐 이렇게



초보운전자 나모씨 (41, 주부)는 며칠 전 남편의 승용차를 몰고 일산 신도시를 방문하게 됐다. 나씨는 신도시가 아직 도로 포장 공사가 많고 자신이 초보운전자라는 점을 감안, 조심 조심 운전했지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통과하다 그만 보행자를 치고 말았다.

사고가 난 곳은 도로 포장 공사관계로 횡단보도 노면 표시가 완전히 지워진 상태였고 표지판만 설치되어 있었다.

공사전까지만 해도 횡단보도였던 곳이었으므로 피해자였던 이모양(23)은 안심하고 길을 건너던 터였다.

피해자를 우선 병원에 후송한 나씨는 사고소식을 듣고 달려온 피해자 가족들이 나중에 후유증이 우려된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자 덜컥 겁이 날 수 밖에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횡단보도 사고는 보험 처리는 되지만 부상 정도가 심한 경우

공사로 횡단보도 노면 표시 완전히 지워졌을 땐 단순사고로 처리

10대 중과실 사고로 운전자가 구속수감될 수도 있는 까닭이었다.

그런데 얼마 후 병원을 찾은 조사 경찰관은 현장검증을 마친 뒤 구속은 커녕 뒷바닥에 단순사고로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번 사고는 표지판은 있으나 도로공

53년 4월부터 55년 6월까지

서남지구 共匪討伐

경찰관도 參戰 혜택 부여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통과

6·25전쟁에 포함되는 전투에 서남지구 전투경찰대가 1953년 4월부터 1955년 6월까지 서남지구에서 행한 공비토벌 전투 등 7개 지구의 전투를 추가한다는 것을(제2조 제1호) 주요내용으로 하는 참전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 대상자들이 혜택을 보게 되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참전유공자가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65세)에 해당하더라도 참전명예수당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의용경찰 등의 참전사실을 신속·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전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에서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종전에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던 6·25전쟁 참전사실을 앞으로는 경찰청장도 인정하도록 한다는 것과(제2조제2호마목 신설), 종전에는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급신청을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급신청제도를 폐지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도록 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제6조 제2항 삭제 및 같은 조 제3항).

또한, 참전유공자의 처, 자녀, 부모 등의 유족에게 지급하던 장제보조비를 유족이 없는 때에는 참전유공자의 친족 중 재산상속인에게, 재산상속인도 없는 때에는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제9조 제6항 후단 신설). 이 법률안은 지난 3월 2일 의결되었으며 3개월 이후인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사로 인해 노면 표시가 완전히 없어진 곳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횡단보도사고로 볼 수 없어 단순사고로 처리된다는 조사 경찰관의 설명이었다.

이어서 조사 경찰관은 횡단보도 사고는 횡단보도 노면 표시되어 있고 동 노면 표시 구간내에서 발생한 사고일 때만 횡단보도 사고로 인정되는 것이며 특별히 횡단보도 노면 표시가 절반만 포장되

고 절반은 노면표시 되어있는 경우에는 누가 봐도 횡단보도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이때는 횡단보도로 인정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서울 송파구 풍납동 276-43 (101호)
전화 : 02-489-2380~1
FAX : 02-489-2382

젊게 사는 비결은 열심히 일하는 것

서계주유소 운영하는 구웅서 회원



던 한해였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매주 유류값이 오르고 휘발유가 리터당 1,400원대, 경유도 1,000원대까지 상승하여 소비가 급변하면서 각 정유사들이 비상이 걸렸다.

각 정유사들은 매년 목표를 상향조정하여 실적이 떨어지면 매월 대책회의는 물론 회사중역들이 사업현장을 순회방문하면서 판매를 독려하고 다녀도 워낙 소비경제가 떨어져 있어 판매목표를 20~30%로 하향 재조정 해야했다.

이런 가운데 구 회원은 앉아서 판매하는 경영에서 벗어나 찾아 다니는 판매로 전환하여 건설현장의 옛동지들의 연고회사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서로 도움이 되는 가격할인제도 등의 판매전략으로 전년도 대비 231드림이나 더 판매

하는 실적을 올렸다.

판매량은 컴퓨터로 인터넷에 올려주위에서도 판매비법이 무엇이나고 문의가 올 정도이고 본사에서도 목표치 이상 판매에 대한 격려금으로 일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그간에 관측비와 직원사기 진작 등에 사용하여 더 큰 보람과 사업하는 재미를 알게되었다는 구 회원.

회사경영에 무슨 나이와 경력이 필요한가-

경기 과천시 정보과장을 끝으로 99년에 명예퇴직한 구 회원은 기쁨몰은 장갑에 직접 주유기를 잡고 분주하게 고객을 맞이하면서 "경찰에서 이기고 살아 남으려면은 남다른 노력과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을 새삼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고 강조하면서 자기를 아는 주변 동지들로부터 이제는 편히 쉬라는 권고를 많이 받지만 "원하는 것 보다 도전하는 쪽이 더 젊게 사는 원동력"이라면서 "경우회원이 자기 사업체를 한번 돌려주면 항상 따뜻하게 대접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서계주유소 (전화) 02-713-7266

화제의 인물

警友 장학생 矜持 갖고 싶어요

숙명여대 최경윤양 SBS 「퀴즈쇼 최강남녀」에서 우승

최근 우수한 학부성적을 받아 금년도 경우장학금을 수령했고, 박종순 여경희 장으로부터 1백만원의 특별 격려금까지 받았던 서울 숙명여대 교육학부 4년 최경윤 양(23세)이 지난 3월 26일 토요일 오후 5시 10분 개최된 SBS 퀴즈 쇼 최강남녀에 출전하여 1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안았다.

각 분야별로 최신 시사상식 등을 질문하는 이날 퀴즈 쇼에서 최 양은 전국에서 선발된 우수한 남녀 대학생 8명과 실력을 겨루었는데, 1단계인 개인퀴즈에서는 부진을 면치 못했으나 파트너와 함께 2인 1조가 되어 벌이는 2단계에서는 발빠르게 문제를 풀어나가 고득점을 얻음으로서 합산점수 480점을 얻어 480만원여치의 관공상품권을 획득하는 결

과를 가져왔다.

최 양은 전과목 A학점을 받아 지난 2월 18일 제 28기 경우장학금 수여식에서 장학금 1백만원과 박종순 장학회 이사로부터 특별 격려금 1백만원을 받아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박수와 격려를 받았었다.

「운이 좋아서 1등의 성적을 거둔 것 같다」며 겸손을 보이는 최 양은 「더욱 열심히 공부하여 경우장학생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도 되고 장차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인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우회는 지난 3월 30일 중앙회 임원실에서 최병일 감사와 김광웅 감사로부터 업무전반에 걸친 정기 감사를 받았다.

4월의 예정 행사

◆ 무궁화회

• 일시 : 4월 18일(월)
• 장소 : 기흥 컨트리클럽

◆ 경유산악회

• 일시 : 4월 21일(목)
• 장소 : 이천 설봉산(예정)



대한민국재향경우회 eMARKET 전산용품 전문몰

▶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전산용품 전문몰



● 전산용품 전문몰 이용혜택

1. 전국 경찰관서 후불판매
2. 자동 견적서 산출기능
3. 구매량에 따른 가격조정
4. 회원가입 및 이용에 따른 적립금 지급
5. 빠르고 정확한 배송

전국 경찰관서 전용, 전산용품 구매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세요!

■ 신청방법

- ① 대한민국재향경우회(www.ex-police.or.kr)에 접속하신 후, 전산용품 e마켓 배너 클릭!
- ② 전산용품 e마켓에서 상품 검색 후, 해당 상품을 주문해 주십시오.
- ③ 신청서, 내부결제에서 필요한 검수 서류를 선택해주시면, 제품과 함께 첨부해 드립니다.
(주문내역서, 세금계산서, 검수요청서, 승락사항,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기타서류)

잉크, 토너, 백업테이프, 복사용지 등 전시판매

경찰관서내 전산소모용품!
이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e마켓에서 구입하세요!



경찰관 여러분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용안내 및 구입문의
(02)704-9020